

감성충만한 가을...가요계에 부는 리메이크 바람

“첫 악역...더 악랄·섬뜩하게 연기”

영화 ‘범죄도시’ 조폭두목 장첸 역 윤계상

차트정상에 소환된 26년전 ‘가을아침’ 아이유 청아한 음색에 옛 감성 되살려 방탄소년단·소유 등 리메이크 잇따라

26년 전 노래가 유희열 음원차트 1위를 휩쓸었다. 아이유의 ‘가을아침’이다.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영금영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 뜬 드는 냄새가 어우러진~”(‘가을아침’ 중)
기타리스트 이병우가 만든 ‘가을아침’은 양희은이 데뷔 20주년인 1991년, 불혹의 나이에 발표한 앨범 ‘양희은 1991’의 동명곡이 원곡이다.
그 시절의 향수 어린 노랫말은 지금 시대와 거리가 있지만 소박하고 따뜻한 정서는 아이유의 청아한 음색을 타고 다시 뚫렸다. 세계적인 아이돌로 성장한 방탄소년단의 신곡 ‘DNA’도 차트에서는 이 노래를 저지하지 못했다.
3년 전, 첫 리메이크 앨범 ‘꽃갈피’에서 조덕배, 산울림, 김광석, 김현식, 이문세 등 선배들의 명곡을 골랐던 아이유는 ‘꽃갈피 둘’을 발표하면서 첫 곡으로 ‘가을아침’을 꺼내놓았다. 이 앨범에는 정미조, 소방차, 김건모 등 1970~90년대 곡들이 선곡됐다.
비단 아이유만이 아니다. 최근 옛 감성을 되살리는 1980~90년대 곡들이 젊은층에 친숙한 음색으로 다시 불리고 있다.
◇ 방탄소년단·레드벨벳·소유·신현희와김루트, 잇단 리메이크
방탄소년단은 지난 7월 서태지와아이들의 대표곡 ‘컴백홈’(Come back home)을 리메이크했다. 데뷔 25주년을 맞은 서태지가 자신의 대표곡을 리메이크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어반자카파, 크러쉬, 윤하 등의 후배들이 그의 명곡을 다시 불러 공개했다.
올해 ‘빨간 맛’으로 인기를 누린 걸그룹 레드벨벳은 지난달 윤종신의 5집 ‘우’(1996)의 타이틀곡 ‘환생’을 발표했다. SM엔터테인먼트와 윤종신이 이끄는 미스틱엔터테인먼트의 협업 음악 웹예능 ‘눈덩이 프로젝트’에서 작업한 곡이다. 레드벨벳은 랩 파트를 추가해 사랑에 빠진 설렘을 경쾌하게 표현했다.
제주 출신 소유는 이달 ‘제주도의 푸른 밤’을 재해석했다. 이 곡은 1988년 들국화 출신 최성원의 1집 타이틀곡으로 성시경, 태연 등 이미 여러 가수에 의해 리메이크됐다. 브라더스가 편곡한 소유 버전은 담백한 음색을 살리면서 원곡의 편안하고 여유로운 정서를 그대로 옮겨왔다.

심어송라이터 진보도 한국의 명곡을 R&B로 재해석하는 프로젝트 앨범 ‘KRNB2’을 진행하면서 이달 김현식의 ‘그대와 단둘이서’를 공개했다. 빛과소금의 장기호가 작사·작곡해 김현식이 부른 1986년 곡을 진보와 박재범이 함께 불렀다. 관현악 연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달콤한 돌의 하모니가 녹아들었다.
연초 ‘오빠야’로 차트에서 반향을 일으킨 혼성 듀오 신현희와김루트는 공일오비(장호일, 정석원)가 1991년 발표한 2집 수록곡 ‘친구와 연인’을 다시 불러 29일 공개한다. 이들은 데뷔 27주년을 맞은 공일오비가 자신들의 곡을 리메이크하는 앨범에 첫 주자로 참여했다.
공일오비의 소속사 측은 25일 “공일오비가 신현희와김루트에게 최적화된 편곡을 했다”며 “이 곡을 처음 접한 분들에게는 새로움을, 원곡을 사랑한 분들에게는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 좋은 리메이크는 세대 연결...“원곡 DNA 살리면서 이질감 없어야”
리메이크는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어 음악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이다.
1997년 카니발(김동률, 이적)이 원곡인 ‘거위의 꿈’(2007)을 인순이가 다시 불러 큰 사랑을 받았듯이 원곡보다 히트한 경우도 있다. 이문세의 대표곡인 ‘붉은 노을’(1988)을 이문세의 노래라고 하면 옛사람, 2008년 이 곡을 새롭게 부른 박병의 노래라고 하면 요즘 사람이란 오스겟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옛 노래가 지금의 가수들을 통해 환기돼 생명력을 얻으면, 세대와 세대의 연결고리가 된다.
아이유의 ‘꽃갈피 둘’ 멜론 감상평에도 “저희 아버지가 50대이신데 이밖에 나온 노래를 들어드렸더니 감상에 젖으셨다”, “노래 너무 좋아서 엄마에게 앨범 전체 추천해드림. 부모님 세대는 다 아실 노래라 생각...”이란 글이 올라왔다.
물론 리메이크는 과거 대중성이 입증된 곡들이기에 어느 정도 흥행을 담보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아이유 같은 방향은 그의 독보적인 음원 파워 덕이다.
실제 드라마 OST(오리지널사운드트랙)까지 수많은 아이지는 리메이크곡들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다. 지난 수년간 각종 음악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과거곡이 다시 불렸지만 경연의 특성상 원곡이 과도하게 해석돼 매력을 반감시킨 노래도 다수였다.
자신의 대표곡을 리메이크하는 프로젝트를 선보여 주목받은 프로듀서 박근태는 “좋은 리메이크는 원곡의 감정을 우선시하면서 그 곡을 다시 대하는 현대 사람들과 이질감이 없어야 한다”며 “세련된 사운드, 음악적인 해석 뿐 아니라 원곡이 가진 DNA를 중요하게 재배열하는 것이 좋은 리메이크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으스스한 패차장. 거울 앞에 서서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를 모아 고무줄로 단단히 돌려 묶고는 도끼를 집어 들고 인정사정없이 내리찍는다. 영화 ‘범죄도시’에서 윤계상이 등장하는 첫 장면이다.
서늘한 눈빛에 엔벤사투리를 쓰는 그의 모습은 처음에는 낯설지만, 영화가 끝난 뒤에는 강한 잔상을 남긴다.
25일 서울 삼정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윤계상은 “그동안 주로 젠틀하고 선하거나 방황하는 청년, 혹은 지질한 역할을 많이 했다”면서 “존재만으로도 무서워 보이는 역할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가 맡은 배역은 중국 하얼빈에서 넘어온 조폭 두목 장첸. 돈 되는 일이라면 눈 하나 깜박하지 않고 칼과 도끼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악귀 캐릭터다. 강한 역할에 목말라 있던 윤계상은 “시나리오를 보고 악역의 ‘아우라’가 세계 느껴져 단번에 출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첫 악역 도전인 만큼 두 달간 엔벤사투리를 배우고, 몸집을 키우는 등 준비도 철저했다. 그의 노력의 결과는 스크린 안팎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촬영장에 제가 나타나면 어느 순간 스태프조차 슬슬 피했어요. 시사회에서 영화가 끝난 뒤 무대 위에 서면 관객들도 저를 보고 겁먹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하하”
장첸은 극 중 정의의 형사 마동석과 대적점에 있는 인물이다. 윤계상은 “제가 무조건 ‘나쁜 놈’이 돼야 동성이형 등 형사 캐릭터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가능한 한 더 악랄하게, 섬뜩하게 연기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외모에도 변화를 줬다. 뻘뻘한 조폭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장발을 제안했다. 아이디어는 좋았으나, 촬영 과정은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한다. “짧은 기장에 긴 머리를 붙이다 보니 피부에 피가 맺힐 정도로 너무 아팠죠. 액션보다 장발을 붙이는 게 더 힘들었을 정도예요.”
인기 그룹 지오디 출신인 윤계상은 2004년 팀에서 탈퇴한 이후 10여 년간 연기에 매진하며 어느덧 중견 연기자가 됐다.
영화 ‘비스티보이즈’(2008), ‘풍산개’(2011), ‘소수의견’(2015)을 비롯해 드라마 ‘최고의 사랑’(2011), ‘라스트’(2015) 등 TV와 스크린을 오가며 쉬지 않고 활약했다. 필모그래피가 늘어날수록 연기력은 인정받았지만, 아쉬움은 남았다. 흥행 면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탓이다.
윤계상은 ‘범죄도시’로 다시 한 번 도약을 꿈꾸고 있다. 추석 연휴 때도 ‘범죄도시’ 홍보에 올인할 예정이다.
“제가 티켓파워가 있는 배우는 아니지만, 이번 작품이 정말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에는 그동안 단역이나 조연만 해온 많은 배우가 오디션을 거쳐 출연했거든요. 강윤성 감독님은 17년을 기다려 메가폰을 잡았고요. 영화가 잘돼서 배우들과 감독님이 이름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재)	00 MBC 뉴스투데이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행복한 지도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1대 100 (재)	50 웰드라마 특선 세가지색 판타지 -생동성 연애(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영실 (재) 50 감성툰 고집입니다 2 (재)	50 라제리 소녀시대 (재)	00 MBC 청요뉴스 20 TV속의 TV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 (재)	05 특선다큐 리스타인의 요리 기행 <이탈리아>	20 헬로키키 동물교실	55 닥터 365
1	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0 2017 남녀대학생구구 챌린지결정 2차전	00 생활의 발견 (재) 5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15 수빈스토리 2 45 별벌머리 (재)	00 뉴스브리핑
2	50 팔도밤산 스페셜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 (재)	50 하하랜드 스페셜	00 2017 중흥 S-클래스 고교동문 골프대회
3	00 4시 뉴스집중	00 제보자들 (재)	00 MBC 이브닝 뉴스 40 왕은 사랑한다 (재)	00 SBS 오뉴스 55 KBC저녁 뉴스
4	00 KBS 뉴스 5 10 KBS광주 연중특별기획 남도스페셜 30 팔도밤산 스페셜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내 남자의 비밀 (재) 30 2TV 생생정보	10 살맛나는 세상	00 영재발굴단
5	00 KBS 뉴스 6 35 KBS결작 다큐멘터리 (20년 전의 약속)	50 내 남자의 비밀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락
6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1대 100	35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55 별벌머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애 한밤
7	00 KBS 뉴스 7 40 시사기획 창 (재주, 공존의 그늘)	00 라제리 소녀시대	00 웰드라마 특선 세가지색 판타지 -생동성 연애	00 사랑의 온도
8	35 KBS 뉴스라인	10 남편 갱생 프로젝트 가두리	10 볼타는 청춘1~2부	
9	05 UHD 특집 트레킹노드 세상을 걷다 55 해외걸작드라마 경강 매그레	35 세상의 모든 다큐 (재)	2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15 꼬마기사 마이크	19:30 EBS뉴스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09:40 정수의 비밀(재)	15:30 오도트, 이상한 아이들	19:55 극한직업
(일본 개항사 2부	10:30 한국기행(재)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20:40 다큐오류
화춘양재, 돈가스와 스모)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00 엄마 깨투리	<멕시코 전통의 향기를 찾아서>
06:00 한국기행(재)	<두부 가지밥과 뿌리채소>	16:15 투다다큐	20:50 세계테마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보르네오가 부르네오! 2부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2:00 EBS 점오 뉴스	16:45 당동영 유치원1~2(재)	미지의 정글, 룩사도
07:30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큐	17:15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21:30 한국기행
07:45 출동! 슈퍼웬스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7:3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가을바다 신 자선여보 2부
08:00 당동영 유치원1~2	12:45 메디컬 다큐-7요일(재)	17:45 호기심 소녀 도트	섬마을 소문난 어부의 비책
08:30 플라워링 하트	13:40 성년 홀고기(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리나니1~4	21:50 EBS 다큐프라임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	19:00 몬카트	22: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09:00 몬카트	-미루의 어드벤처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23:35 메디컬 다큐- 7요일
09:15 소피 루비	15:00 우주탐험가 젯	-미루의 어드벤처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6일(음 8월 7일 丙辰)	
子	48년생 교체되면서 원점으로 회귀하는 양상이다. 60년생 자신이 마음먹었던 대로 진행해도 지장이 없었다. 72년생 평상시에 잘 갖추고 있었다면 그에 따른 덕을 보게 되리라. 84년생 고정 관념을 버리지 않으면 곤혹스럽겠다. 행운의 숫자 : 97, 86	午	42년생 갈림길에 서게 된다. 54년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66년생 회피가 교차하니 방심하면 아니 된다. 78년생 건박한 동시에 만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겠다. 90년생 주권이 필요하도다. 행운의 숫자 : 14, 33
丑	49년생 전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이면으로부터 불씨가 올 수도 있다. 61년생 관성이 나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3년생 뜻밖이어서 무척 당황하리라. 85년생 지금 눈앞에 보이는 바로 그것이다. 행운의 숫자 : 24, 18	未	43년생 미련은 모두 버리고 확고한 결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55년생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양상을 띤다. 67년생 임시편적인 이면 면면이되리라. 79년생 성취의 문이 열릴 것이다. 91년생 양보가 가장 빠르고 유익한 방법이라. 행운의 숫자 : 16, 46
寅	50년생 너무나 비슷비슷하니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자. 62년생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라보는 것이 유익하다. 74년생 기쁨의 자리에 함께 할 수니 호강 받겠다. 86년생 정성을 들인다면 결과물의 확보도 가능하다. 행운의 숫자 : 74, 11	申	44년생 여러 가지 경로를 거치면서 성과를 도출하는 국량에 이른다. 56년생 계획대로 진행해도 무탈할 것이다. 68년생 굵은 것은 바로 파는 것이 바람직하다. 80년생 철저한 정비와 보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곤란하다. 행운의 숫자 : 55, 52
卯	51년생 기운이 상승하여 길지로 안내하는 판도이다. 63년생 과감해야만 실행의 효과가 증폭될 것이다. 75년생 부족함을 채우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자. 87년생 힘들기는 하겠지만 견뎌낼 수만 있다면 대박이 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4, 21	酉	45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소신껏 행하는 것이라. 57년생 고정 관념이나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시각으로 살펴야 제대로 볼 수 있다. 69년생 본전만 찾아도 다행이다. 81년생 낮게 책정하는 것이 순탄함을 유도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72, 74
辰	52년생 관건이 될 만한 핵심 가지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4년생 상고간에 경계해야 할 때다. 76년생 마음만으로는 아니 되니 반드시 언행으로써 표현해야 한다. 88년생 성과를 거둘 수 있으니 기대해 볼 만하다. 행운의 숫자 : 02, 35	戌	46년생 치열함의 강도에 따라서 성과가 좌우 될 것이다. 58년생 체면을 의식하다가 아무런 일도 못 한다. 70년생 주된 것을 등한시하고 종된 것에 관심을 둘 수도 있었다. 82년생 집적이 가더라도 굳이 내색할 필요는 없었다. 행운의 숫자 : 73, 06
巳	53년생 활력소가 되어 줄만한 조건이 주어지게 된다. 65년생 막힌 물꼬가 시원하게 트이는 이치이다. 77년생 시세에 대응하는 운이 약하므로 잠시다. 89년생 상응하는 조건에 부합한다면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된다. 행운의 숫자 : 05, 47	亥	47년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만 난국을 풀 수 있을 것이다. 59년생 어떠한 경우라도 예정대로 이행해야 한다. 71년생 신속한 조치가 이뤄져야만 할 국세이다. 83년생 물질적인 면은 양호하지만 심리적인 압박감이 따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4, 0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